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8월 31일 목요일 (음 7월 10일) 제18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과학과 기술의 만남 전북의 미래를 열다

도 과학축전, 1일부터 3일까지 도청 일원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 대표기술 체험 프로그램 마련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함께 주최하고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제12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과학과 기술의 만남, 전북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전북도청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 대표기술(AI, VR/AR, 드론 등) 체험 중심으로 열린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축전은 최근 과학 이슈인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로봇, 드론,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등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주제관을 비롯해, 민선 6기 3대핵심산업인 삼락농장, 토탈관광, 탄소산업과 4차 산업혁명이 융합된 컨텐츠 등을 준비, 전북도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미래 추진방향을 도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올해에는 도내 5개 대학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단과 우수가족기업이 참여하는 '전북LINC+사업단 융합홍보관'과 전

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등의 열정으로 유치를 성공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의미와 그간의 노력, 앞으로 스마트 잼버리 개최 준비를 도민에게 알리는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홍보관'을 신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기관 참여, 체험 중심의 과학기술 프로그램 선보여 지난해 122개 프로그램에서 150여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정부 및 도출연 연구기관 등 38개 기관과 전북도에서 지원한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도내 기업을 포함할 모두 49개의 단체가 참여, 39개 초·중·고교 참여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6개 기관·단체·학교가 참여, 모든 세대가 과학문화를 즐기며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축전 테마는 크게 상상(Imagination)마당, 융합(Convergence)마당, 재미(Enjoyment)마당으로 구성하고 영문 이니셜을 조합한 "ICE"를 적용, 행사

장 입장부터 퇴장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이해와 기초과학과 융합과학기술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문객 모두가 '시원한 과학 상상'속으로 빠져들도록 기획했다. 상상마당에서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으로 상상력을 키울수 있도록 개막 행사와 야간공연을 포함한 공식행사, 과학적 호기심을 공연과 강연으로 풀어보고 알아가는 과학콘서트, 관람객이 참여하는 놀이형 과학 이벤트가 진행된다. 개막식은 9월 1일 오후 2시 30분에 전북도청 공연장 3층에서 개최하며,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교육감 등 전라북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제12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과학축전에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공지능,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드론, 3D프린팅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주제관에서 체험을 통해서 도내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인류의 미래를 그려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탐스럽게 영근 포도 30일 오전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도시험 포장에서 연구원과 어린이들이 포도수확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감정원 군산지사 6년여만에 복원

10월 개소 익산·김제·고창 등 도내 5개 시군 관할 전북도, 감정원·국토부·기재부 등과 협의 '결실'

전북도가 전북 뚝 찾기 일환으로 펼쳐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유치 노력이 속속 성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는 한국은행의 화폐수급업무 재개(9월 20일)에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감정원 군산지사가 6년여만에 복원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감정원 군산지사는 오는 10월 개소할 예정이며 군산시와 익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도내 5개 시·군을 관할하게 된다. 이번 한국감정원 군산지사 유치는 전북도가 지난해 말부터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면적 증가 및 지역균형 발전 등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에 기본이 되고 있는 주택 가격공시업무 및 부동산 시장동향과 관련된 조사 통계업무 등을 수행하는

반면, 부동산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업무, 녹색 건축물의 인증 등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관련 정보의 제공 자문 업무, 서민 담보대출비용 절감을 위한 담보물건 시세확인 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전북지역은 도내 14개 시군을 한국감정원 전북전주지사 1개소 28명(정규 20, 외주 8)이 담당하고 있어, 타 시·도 2~5개소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한국감정원 군산지사는 1978년부터 운영되다가 정부의 공공기관 축소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1년 3월에 폐쇄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한국감정원 군산지사는 앞으로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지가 등 과세 기준가격 산정 시 현장 확인 조사를 보다 정확하고 활발히 추진 할 수 있음에 따라 공정한 부동산 과표산정과 더불어 세무부서 및 토지관리 관련부서의 업무효율

성 향상과 도민의 정확한 재산관리에 따른 신뢰도 증대가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조사 통계업무는 조세 및 각종 복지연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등 도민 생활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군산지사 유치는 앞으로 도민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원세훈, 선거법 유죄 징역 4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용)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중 시기에 따라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뉴시스

언어학회 전문학술지 '언어', 우수등재지 선정 연구재단 학술지평가서 최고 성적 거둬

한국언어학회(회장 문승철, 항공대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17 학술지평가서에서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언어학회가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인 '언어'(편집위원장 박시군 군산대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2017 등재학술지 유지평가서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등재학술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은 물론 올해 심사대상이었다던 852종의 학술지

중 34종의 학술지에게만 주어진 '우수등재학술지'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특히 인문예체능분야에서는 4종만이 선정되어 인문예체능분야를 선도하는 '우수등재학술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게 되었다. 한국언어학회는 한국의 언어학계를 대표하는 선도학회로서 1975년 학회가 창립된 이래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

론, 역사비교언어학, 언어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언어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학회 학술지인 '언어'를 통해 국내외의 우수한 학자들의 연구 업적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문승철 회장은 "학회의 학술지인 '언어'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을 발판으로 한국 언어학이 세계 언어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학회를 이끌어 가겠으며, 학술지 '언어'도 세계적인 학술지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학술지의 고급화, 양질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장 현 기자

www.firefly.or.kr

제21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축제

The 21st Muju Firefly Festival

2017.8.26(토) ~ 9.3(일)
무주군일원 | 지남공원, 등나무운동장, 남대천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2017 무주 남대천 물축제

8.26~27, 9.2~9.3 (4일간)

·주최, 무주군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전라북도 ·무주군 ·전북도지사 ·전주, 전북 무주군 무주읍 회북로 15 ·문의, (063)320-5004-05